

수사·재판 핑계로 자료 제출·조사 거부 못한다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주요 내용

60일간 각종 의혹 진상 규명

조사대상·범위 사실상 무제한

17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관련 국정조사계획이 채택됐다. 이번 국정조사는 관련 증인의 불출석 및 자료제출 거부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특검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 진상 파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기타 조항을 통해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감·국조에서 증인들의 단골 불출석 및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무력화한 것으로, 관련 국회법 조항을 놓고 보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다. 현재 청와대 관련자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향후 특별검사와 재판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조사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권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했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최순실(최서현)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문

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적: 300 인	재석: 220 인	찬성: 196 인	반대: 10 인	기권: 14 인						
강길부	강석진	강석호	강효상	곽대훈	곽상도	권은희	김경진	김경영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상화	김성훈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성태	김승환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용태	김재경	김정훈	김종대	김종석	김종희
김종훈	김종로	김태홍	김한표	니경원	노회찬	문진국	박대홍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인숙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우	백덕광	서영교	손금주	송기석
송석준	송희경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심상경	심재철	안상수	안철수	염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경	원유철	유기훈	유민봉	유성업	유승민	유의동	柳在仲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이근현	이동섭	이명수	이상돈	이완영
이용주	이용호	이우연	李應宰	이강우	이정미	이정현	이중구	이중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재익	이철우	이태규	李憲昇	이현재	이태훈	임기진	김정환	강석호	강정숙
김재원	김동영	김병국	김세균	김양석	김영기	김우택	김윤석	鄭仁植	鄭宗燮	鄭宗燮
정진석	조경태	조백숙	조원진	조준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채이배	최경태	최경환(국)
최원호	최고일	최도자	최연태	추경호	추태선	河東廣	한선교	홍문중	홍문표	홍익락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의 광						

반대 10인은 누구?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재석 220인,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 이번 법안에 반대한 국회의원 이름 앞에는 빨간색 원형이 표시돼 있다. 이날 국회 국정조사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연합뉴스

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 의혹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 및 CJ그룹 인사·경영 개입 의혹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 지원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부당 해임 의혹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

이외의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요구할 경우 확대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지율 상승...홀로 웃는 국민의당

17%...한때 새누리 추월하기도

안철수 지지율도 1.7%p 올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국민의당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11월 3주차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30.5%(▲1.5%p), 새누리당 18.2%(▲1.0%p), 국민의당 17.0%(▲1.7%p), 정의당 7.7%(▲1.5%p) 순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탈층을 흡수하며 1.7%p 오른 17.0%로 올해 6월 4주차(17.3%)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

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유지했으나 전주보다는 1.4%포인트 하락한 18.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1.9%로 1.7%포인트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 14일 17.9%로 하락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당(18.0%)에 추박빙의 차로 뒤졌고, 15일에도 16.7%로 일간 최저치를 경신하고 국민의당과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5명을 대상으로 무선(85%)·유선(15%) 임의결기(RDD) 전화면접(CAT)·스마트폰 앱(SPA)·자동응답(ARS) 혼용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p였으며 응답률은 11.8%(총 통화시도 12,972명 중 1,525명 응답 완료)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野 '엘시티 수사' 대응 미묘한 온도차

민주당 의혹 시선 차단 주력

무풍지대 국민의당은 표정관리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지시를 놓고 야권의 두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이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이 전국민적인 퇴진 압박을 받는 시점에 철저한 수사 지시를 한 것은 국민전환용 '물타기'라고 분석했다.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마땅하지만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먼저, 엘시티 비리 의혹의 무대가 PK(부산·경남)의 심장부인 부산

이란 점에서 국민의당은 마음을 놓는 분위기가. 부산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이 포진하고 있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연루될 경우 두 당의 이탈 지지층이 중도 실리를 표방한 국민의당으로 흡수될 것이라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 아니라 대권지형에도 변화를 몰고올 수도 있다고 국민의당은 기대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대권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PK에 적지 않게 포진하고 있어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연루가 확인되면 문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지영 비대위원장은 17일 박 대통령의

수사 지시를 비판하면서 속내를 숨겼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반격을 시작해 자신에 대한 수사는 변호인을 통해 온몸으로 막고 엘시티 게이 트만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자기모순과 이중잣대는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혹여나 민주당으로 향할지 모를 의혹의 시선을 불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부산 정치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구설에 오를 경우 자칫 제1야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지역이 부산이 아니라 당도 적당히 연루돼 있을 것이라 정치공작에 선동될 국민이 아니다. 우리당의 누구도 부패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김무성 '엘시티 연루설' 유포자 고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1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 사건에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문 전 대표를 직접 지목, 엘시티 비리에 연루됐다는 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대해 오늘 오전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며 "하위 사실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유포하고 있어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김경수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야권 일각을 겨냥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흑색선전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전국에 도는 것을 보면 저들이 급한 급한 것 같다"며 "저열한 음모와 협박으로 민심의 파도를 피할 수 있는 국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산 영도구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자신의 엘시티 비리 연루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진 것과 관련, 유포자 색출을 위해 이날 영도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LCT) 비리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장한 것과 관련, "이 사안을 놓고 할 수 있는 법은 탄핵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엘시티 시행사가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가 있는 570억 원 중 로비 비자금으로 유용된 금액을 추려내고, 사용처를 확인해 인허가 비리나 특혜와의 관련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산에서 한 줄 쓴다는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법조계와 금융권 인사치고 이영복 회장과 석사나 솔자리 한 번 갖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필립 한 번 안친 사람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추천1. 무안-일본(기타큐슈, 오사카/북해도) 직항 전세기

★ 무안공항출발! 초특가 규슈여행 ★

548,000원부터~

출발일: 2016.12.16~2017.2.26/3박4일 ※설연휴 별도문의

[품격]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품격]남큐슈 미야자키/가고시마 **998,000~**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룩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1,398,000원부터~

출발일: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베트남/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베트남/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박,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A320-200 / 좌석: 150석

★한별제품★
한별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편도 79,000원부터~
무안⇄오사카: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여행사: 항공 및 선박 컨설팅/전지/여객기 유류료 환율 및 항공요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 계약업체

※여행사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여행사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여행사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여행사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여행사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여행사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여행사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여행사 계약사(최소규정) 및 일정표 반드시 참고하십시오.